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위작은 어떤 예술 작품을 위조하여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예술 작품을 모방하였다는 점에서 모작과 비슷하지만, 모작과 달리 위작은 본인이 해당 작품의 창작자임을 숨긴다는 점, 그를 통해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중에서도 ‘속인다’라는 의도성이 위작과 위작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최우선적인 기준이다.

위작의 예술적 가치가 진품의 그것보다 떨어진다는 명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위작은 진품의 예술적 경지를 상업적으로 흉내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40년대에 일어난 **판 메이헤런의 위조 사건**은 위의 명제가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에 의문을 던졌다. 판 메이헤런은 네덜란드의 화가인 베르메르의 회화 기법을 모방한 후, 이를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베르메르의 작품’으로 둔갑시켜 팔았다. 정교한 수법으로 자신의 화풍을 감추었기에 당시 그의 위작을 감상한 비평가 중 누구도 판 메이헤런이 공개한 베르메르의 작품이 위작임을 알아채지 못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나치 독일이 판 메이헤런의 작품을 네덜란드의 국보급 문화재로 판단하여 수탈한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판 메이헤런의 위조 행각은 나치 부역 혐의를 회피하기 위한 그의 자백으로 세상에 알려졌고, 판 메이헤런은 자신의 위작을 고평가한 비평가들을 조롱하였다. 이처럼 비평가조차 진품과 위작을 구분할 수 없다면, 진품과 구분되지 않는 위작이 진품보다 덜한 예술적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까? ‘잘 그린’ 위작은 진품과 동일한 예술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위작의 역설**은 미학계에 해결하기 어려운 딜레마를 제시하였다. 이를 두고 비어즐리는 맨눈으로 구별할 수 없는 두 대상이 어떻게 다른 예술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레싱은 미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라 주장하며 위작의 역설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미적 가치는 예술 작품의 형식적 특성과 같이 지각적으로 인식되는 특성에서 도출되는 가치로, 비어즐리와 같은 기존의 미학자들은 예술 작품은 미적 가치만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레싱은 미적 가치만으로 예술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면 예술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근본적으로 예술 작품이라 함은 창작자의 상상과 감성, 그리고 상상과 감성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력과 독창성이 동원되어야 완성될 수 있다. 그런데 창의력과 독창성은 예술 작품의 형식 이외의 측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레싱은 미적 가치와는 구분되는 예술적 가치로서 **④ 독창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고, 위작은 진품의 독창성을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진품보다 예술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설령 위작이 진품의 요소를 변칙적으로 수용하여 그 나름대로 창의성을 녹여냈다고 하더라도, 위작의 특성상 진품의 틀을 완전히 탈피할 수는 없기에

상이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 굿맨은 레싱과는 다른 방식으로 위작의 역설을 공략하였다. 애초에 지각으로 진품과 구별할 수 없는 위작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굿맨에 따르면,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은 그 순간의 느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배경 지식에 의존한다. 즉, 특정 시점에 위작과 진품을 구별하지 못했더라도 훈련과 경험을 통해 둘 사이에 명확히 존재하는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굿맨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판 메이헤런의 위조 사건을 다시 가져왔다. 판 메이헤런의 위작이 당대에는 베르메르의 작품으로 평가받았지만 후대의 비평가들은 판 메이헤런의 위작과 베르메르의 작품 사이에 실존하는 형식적 차이를 발견하였는데, 굿맨은 이것이 특정 시점에서 진품과 구분되지 않는 ‘잘 그린’ 위작이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차이를 지각적으로 발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예시라고 주장했다.

㉡ 단토는 굿맨의 주장을 비판함과 동시에 레싱의 주장을 계승하여 위작의 역설을 해결하려 하였다. 우선 단토는 지각으로 구분할 수 없는 위작이 결코 불가능하다는 굿맨의 안이함을 지적하였다. 기술의 발전으로 진품과의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는 복제가 가능해진다면 굿맨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대신 단토는 레싱의 방식을 택하였다. 예술 작품은 창작자의 태도와 관점이 은유적으로 투사된 것이다. 즉, 예술 작품은 창작자가 작품에 투사한 자신의 태도와 관점, 그리고 그것의 변화상을 짚어내는 도구이다. 그러나 위작에는 창작자의 태도나 관점이 투사되었다고 할 수 없다. 위작을 만든 사람이 해당 작품을 모방한 이유는 원작자의 태도나 관점을 계승하기 위해서, 또는 창작자 자신의 태도와 관점을 투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단지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토가 진정으로 예술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라 생각한 것은 **㉢ 해석 가능성**이다. 단토에 따르면 판 메이헤런의 위작은 베르메르의 관점의 맥락에서 해석될 수 없으므로 그 예술적 가치를 잃는 것이다.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정의가 지닌 한계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학자들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설명하여 문제 상황이 해결된 배경을 밝히고 있다.
- ③ 특정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철학적 문제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④ 일반적인 통념에 의문을 제시하고, 검증을 통해 통념이 사실과 다름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상반된 두 가지의 주장을 제시한 후 각 주장이 가지는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2.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누군가가 어떤 예술 작품을 모방한 후 그것을 자신의 작품으로 발표하여 판매하였다면 그 작품은 위작이 아니다.
- ② 판 메이헤런은 자신의 위작이 당대의 비평가들에게 베르메르의 작품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베르메르의 작품에 드러나는 지각 가능한 요소를 모방하였다.
- ③ 판 메이헤런의 위작을 처음 감상한 당대의 비평가는 판 메이헤런의 위작과 베르메르의 작품 사이에 구분되지 않는 특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 ④ 비어즐리는 예술 작품이 오로지 그것에서 드러나는 형식적 측면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 ⑤ 레싱은 미적 가치에 내재하는 독창성을 토대로 판 메이헤런의 위작을 베르메르의 작품과 구분하였다.

3. ㉠, ㉡의 관점에서 판 메이헤런의 위조 사건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 판 메이헤런의 위작이 당대에 베르메르의 작품으로 취급된 것은 둘의 미적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 ② ㉠ : 후대의 비평가들이 판 메이헤런의 그림이 위작임을 알아차린 것은 베르메르의 작품에서 베르메르의 관점을 읽어낸 것에서 기인한다.
- ③ ㉡ : 판 메이헤런의 위작과 베르메르의 작품은 지각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판 메이헤런의 위작은 베르메르의 작품보다 예술적 가치가 덜하다.
- ④ ㉡ : 판 메이헤런의 위작이 베르메르의 작품 사이에 놓일 경우, 베르메르의 관점의 변화상을 오인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⑤ ㉡ : 판 메이헤런의 위작은 판 메이헤런의 관점이 투사되었기 때문에 베르메르의 작품보다 덜한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

4.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창작자의 상상을 구현하는 요소이다.
- ② ㉠을 갖춘 위작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③ ㉡는 창작자의 관점의 맥락을 읽어내는 요소이다.
- ④ 위작은 ㉡의 결여로 인해 예술적 가치를 상실한다.
- ⑤ ㉠과 ㉡는 모두 미적 가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요소이다.

5. <보기>는 위작의 역질을 구체화한 것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전제 지각만으로는 진품과 구별할 수 없는 위작이 존재한다.

명제 1 두 작품을 통해 같은 지각을 경험한다면 두 작품의 예술적 가치는 동일하다.

명제 2 위작은 진품보다 예술적으로 열등한 가치를 지닌다.

- ① 전제와 명제 1을 동시에 수용한다면 명제 2를 수용할 수 없겠군.
- ② 비어즐리는 미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가 동의어라 판단하여 명제 1을 수용했겠군.
- ③ 레싱은 위작이 진품에 비해 독창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명제 2를 수용했겠군.
- ④ 굿맨은 훈련과 경험으로 위작과 진품을 구분할 수 있는 지각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전제를 부정했겠군.
- ⑤ 단토는 진품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해석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여 명제 1을 부정했겠군.